

● 회의 개요

- **시간:** 9월 11일 23시 30분 ~ 익일 00시 45분 / 9월 12일 01시 20분 ~ 04시 00분 (총 3시간 55분)
- **방법:** 디스코드를 활용한 비대면 회의, 왕인성 집으로 집결하여 보드판과 포스트잇을 이용한 대면 회의
- **내용:** 각자의 KJ 매핑 결과물을 취합한 후 나온 아이디어에 대해 여섯모자 기법으로 판단

● KJ 매핑 내용 정리

문제 인식

- 문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
- 문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
- 문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
- 문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
- 문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

문제 정의

- 문제의 정의가 불분명함
- 문제의 정의가 불분명함
- 문제의 정의가 불분명함
- 문제의 정의가 불분명함
- 문제의 정의가 불분명함

문제 분석

- 문제의 원인을 분석함
- 문제의 원인을 분석함
- 문제의 원인을 분석함
- 문제의 원인을 분석함
- 문제의 원인을 분석함

문제 해결

- 문제의 해결 방안을 모색함
- 문제의 해결 방안을 모색함
- 문제의 해결 방안을 모색함
- 문제의 해결 방안을 모색함
- 문제의 해결 방안을 모색함

문제 평가

- 문제의 해결 방안을 평가함
- 문제의 해결 방안을 평가함
- 문제의 해결 방안을 평가함
- 문제의 해결 방안을 평가함
- 문제의 해결 방안을 평가함

▲ 김다현, 왕인성

아이디어

- 기능 추가
- 기능 추가
- 기능 추가
- 기능 추가
- 기능 추가

장점

- 기능 추가
- 기능 추가
- 기능 추가
- 기능 추가
- 기능 추가

단점

- 기능 추가
- 기능 추가
- 기능 추가
- 기능 추가
- 기능 추가

외관상 문제

- 기능 추가
- 기능 추가
- 기능 추가
- 기능 추가
- 기능 추가

기능상 문제

- 기능 추가
- 기능 추가
- 기능 추가
- 기능 추가
- 기능 추가

개선점

- 기능 추가
- 기능 추가
- 기능 추가
- 기능 추가
- 기능 추가

▲ 류송지

▲ 박진석

● 의견 충돌 1

- **충돌 내용:** 개인 KJ 매핑의 최종 결과물만 깃허브에 저장할 것인지, 과정본도 함께 저장할 것인지
- **해결:** 과정본은 보고서 작성 시 필요할 수도 있으므로 따로 남겨놓고, 결과물은 보기 좋게 하나만 따로 저장하여 보기 좋게 모아놓음.

● 의견 충돌 2

- **충돌 내용:** 아이디어 중 "라이트어 수납 케이스"와 "플라즈마 라이트어 케이스"이 같은 아이디어라고 혼선이 있었음.
- **문제 파악:** 전자는 "원래 존재하던 라이트어" 자체를 수납하는 아이디어고, 후자는 휴대폰 자체 전력을 사용하는 것으로, 이는 서로 다른 아이디어임.
- **해결:** 두 개의 아이디어를 통합하지 않고 유지하되, 아이디어에 대한 추가 설명을 작성함.

● KJ 매핑 결과물의 변경사항

- 결과물 통합은 김다현, 왕인성의 개인 결과물을 기반으로 다른 사람의 결과물을 통합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며, 통합 과정에 따른 변경사항은 아래와 같음.
- **아이디어 수정**
 - "플라즈마 라이트어 케이스"의 부가 설명을 추가
- **분류 수정**
 - "새로운 기능"을 "유용한 도구 추가"로 변경
 - "나만의 케이스" 대분류를 제거
 - 손풍기 쿨러 케이스를 "수납" 분류로 옮김
- **추가 아이디어**
 - 스프링 달린 케이스(누락 건)
 - 물티슈 수납 케이스
 - 가방 부착 케이스
 - 머리끈 및 머리핀 수납 케이스
 - 시니타이저 등의 위생용품 케이스
 - 카메라 렌즈 수납 케이스, 향수 수납 케이스
 - 핸드크림 케이스, 향기나는 케이스
 - 블루투스 스피커 내장 케이스
 - 보조배터리 내장 케이스
 - 가변렌즈 내장 케이스
 - 에프킬라 내장 케이스
 - 호신용품(후춧가루, 전기충격기) 내장 케이스
 - 헬리캠 추가 케이스
 - 차키(NFC) 내장 케이스

● 의견 충돌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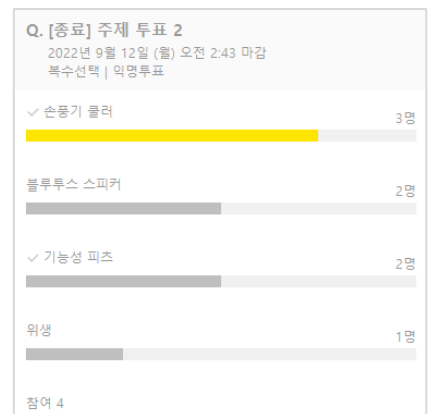
- **충돌 내용:** 여섯모자 기법의 모자 담당에 대한 충돌
 - 다양한 관점에서 보는 것이 중요 - 자신의 성향과 반대되는 모자를 사용해서 진행하자.
 - 자신의 강점을 생각해서 보는 것이 중요 - 자신의 성향에 맞는 모자를 사용해서 진행하자.
- **해결:** 주제를 두 개를 선택하여 두 개의 버전을 번갈아가며 사용하자

● 의견 충돌 4

- **충돌 내용:** 여섯 모자 기법에 사용할 주제(아이디어) 선정에 대한 범위 문제
 - 하나의 아이디어 뿐만 아니라 KJ 매핑으로 매핑된 결과물(김다현, 왕인성 KJ 매핑 내용 정리 사진의 짙은 노란색 포스트잇 부분)도 채택하자 - 광범위 하면 더 많은 의견을 얻을 가능성이 있음.
 - 매핑의 결과물이 아닌 하나의 아이디어로 범위를 축소하자 - 매핑의 결과물을 사용하는 것은 범위가 광범위하여 사람마다 다르게 생각할 여지가 있고, 현 시간(새벽 2시 언저리) 상 빠른 진행을 위해서라면 명확한 아이디어 주제가 필요함
- **해결:** 광범위한 주제라도 다양한 의견과 경험을 해볼 수 있으므로 채택. 단, 회의가 너무 길어질 경우를 대비하여 시간 제한을 맞추고 회의 진행

● 여섯 모자 기법 주제 선별

- 수십 개의 아이디어 중 각자 한 개를 선택하여 카카오톡 투표를 진행해 표가 가장 많이 나온 상위 2개의 아이디어를 채택함.
- 투표 결과, 우측의 사진처럼 "손풍기 쿨러"와 "기능성 파츠 탈부착 DIY 케이스" 아이디어가 선정됨.



● 여섯 모자 기법 (손풍기 쿨러)

- **토론 주의사항**
 - 회의 전 개인적으로 생각할 시간: 5분
 - 하나의 아이디어 당 25분 내외로 진행

● 모자 선정

성함	역할	상세
김다현	검정 모자	부정적 의견을 논리적으로 제시
박진석	노란 모자	긍정적 의견을 논리적으로 제시
왕인성	파란 모자	이성적인 생각으로 의견 요약, 단계 진행
류송지	빨강 모자	감정적으로 접근하여 아이디어 제시
	초록 모자	새로운 아이디어 제시
김지환	하양 모자	중립적 의견을 논리적으로 제시 및 정보 전달

• **토론 기록** (각각의 모자 역할은 위의 표처럼 색깔로 구분함)

류송지:	케이스의 손풍기 쿨러를 탈부착식으로 제작하면 좋겠다
박진석:	쿨러로 인해 케이스가 무거워질 수 있지만 탈부착으로 제작하면 무게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이 좋다
김다현:	탈착시에는 손풍기의 분실 위험이 있다
박진석:	파우치를 사용하면 해결될 문제다
김지환:	“탈부착” 형식이라면 정확히 어떤 방식을 생각중인가?
류송지:	케이스에 트레이를 만들어놓고 쿨러만 자석이나 잠금장치 등으로 붙히고 뗄수 있는 방식
박진석:	탈부착 형식으로 제작하면 필요할 때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은 매우 좋게 생각한다
류송지:	지갑 케이스의 느낌으로 제작하면 좋겠다
박진석:	감성적인 면모가 드러난다. 멋있다
김다현:	감성적인 면을 중요시한다면 고객들은 아이폰을 사용할 것이다
박진석:	테크적 요소를 중요시하는 “기계덕후”들은 이것이 감성적인 면을 자극한다
김지환:	과연 탈부착이 필요한가? 바람 나오는 방향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자
류송지:	방향 조절하는 팬이 있다면 두꺼워 지는데 그걸 그립톡처럼 활용할 수 있을거 같다
김다현:	다른 얘기지만 손풍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류송지:	전자파 차단 스티커를 붙이면 된다
김다현:	스티커는 무의미하다
류송지:	다른 전자기기에서도 전자파가 나오는데 잘 살아 있다. 그 논리대로라면 컴퓨터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박진석:	기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는 인체해 무해한 정도로 발생된다
김다현:	아이들에게는 위험할 수 있다. 매스컴에서 보도된 자료가 있다
류송지:	기기로부터 30cm 떨어지면 안전하다
김지환:	이 논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정확한 학계의 정설이 발표될 때 까지는 이 논쟁은 무의미하다
왕인성:	여기서 잠시 토론을 일시 중단하고, 결론이 도출된 것이 있나?

● **중간 결론 도출**

- 탈부착이 가능한 양면 무풍 손풍기가 있는 케이스 아이디어
- 여기서 발생하는 전자파는 논쟁 제외 대상

박진석:	무풍 손풍기는 어떤 원리로 작동되는 건가?
류송지:	자세한 논리적 아이디어는 모른다. 미래의 기술이 해결해 줄 것이다
박진석:	중간 정리하자면 나는 손풍기 쿨러 탈부착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김다현:	“손풍기” 라고 발언했는데, 겨울이 되면 쓸모가 없게 되는 것이 아닌가?
박진석: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탈부착”이란 기능이 있다
김다현:	이해했다
류송지:	여름엔 쿨러로, 겨울엔 핸드폰 열기의 도움을 받아 난로로 사용 가능하다

왕인성:	의문점 한가지가 있다. 열기를 쿨러로 해소한다면 여름에도 따뜻한 열기가 나오지 않나?
류송지:	그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양면 쿨러"를 채택했다
왕인성:	이해했다. 하지만 류송지님은 빨간 모자 역할이기 때문에 논리적인 대화는 자제해달라. 옐로카드 한 장을 부여하겠다
김다현:	의문점이 있다. 쿨러의 청소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류송지:	선풍기를 분리하여 청소하는 것 처럼 쿨러의 팬을 분리하여 청소하면 된다
김다현:	조그마한 팬을 매번 청소하는 것은 귀찮을 것이다
박진석:	팬 자체를 버리고 새로 끼우는 "소모품"의 형태로 개발하면 된다
김다현:	소모품도 계속 구매하기 번거로움이 발생한다
류송지:	당신은 PC의 쿨러는 사용하지 않는가?
김다현:	사용하긴 한다면 그것은 고가의 기기에 달려있는 쿨러이지 않는가
류송지:	PC 뿐만 아니라 노트북에서도 발열을 효과적으로 제어하기 위해 쿨러 받침대를 사용한다
김지환:	실제로 스마트폰에 사용하는 CPU 쿨러 제품이 존재한다
김다현:	실제 CPU 쿨러의 제품은 가격대가 많이 나가는데 이를 해결할 만한 마땅한 아이디어가 있나?
류송지:	더 저렴한 재료를 사용하여 제작하면 된다
김다현:	그렇게 제작을 하게 된다면 성능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류송지:	두 가지 옵션을 제시하면 된다. 가성비를 원하는 사용자는 저렴한 재료로 만든 쿨러를, 성능을 원하는 사용자는 만들새가 높은 쿨러를 선택하면 된다
왕인성:	류송지님, 빨간 모자 역할이기 때문에 논리적인 대화는 자제해달라. 그리고 현재 시간 상 최종 결론을 맺어야 한다
김지환:	결론적으로, "손풍기 쿨러 케이스" 제품이 존재한다면 사용할 것인가 투표를 진행하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론: 해당 아이디어 제품이 제작된다면 구매할 가치가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김다현, 왕인성, 김지환 • 사용할것이다: 류송지, 박진석 	

● 여섯 모자 기법 (기능성 파츠 탈부착 DIY 케이스)

• 모자 선정

성함	역할	상세
김다현	초록 모자	새로운 아이디어 제시
박진석	검정 모자	부정적 의견을 논리적으로 제시
왕인성	하양 모자	중립적 의견을 논리적으로 제시 및 정보 전달
류송지	노란 모자	긍정적 의견을 논리적으로 제시
	파란 모자	이성적인 생각으로 의견 요약, 단계 진행
김지환	빨간 모자	감정적으로 접근하여 아이디어 제시

• 토론 기록

류송지:	해당 아이디어에 대한 의견이나 창의적인 생각을 시작해보자
김다현:	레고 같이 케이스에 각각 수납함을 만들어 결합하는 아이디어 대해 긍정적으로 본다
류송지:	공감한다. 특히 레고처럼 디자인에 특화된 수납함에 크게 동의한다.
박진석:	이의 있소. 레고처럼 작은 하나하나의 부품으로 수납함을 만든다는 의미인가?
김다현:	맞다. 그게 해당 케이스에 대한 아이덴티티라고 본다
박진석:	“작은 부품”이라는 건 어느 정도의 크기인지 알 수 있나?
류송지:	접착제로 붙일 수 있는 부품으로 DIY 애호가에게 큰 인기가 있다
김다현:	스마트폰 기종마다 부품의 크기는 달라진다.
왕인성:	여기서 부품은 아두이노처럼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다
박진석:	이해했다. 그리고 이 방식이 마음에 든다
류송지:	박진석님은 검정 모자 역할이기 때문에 긍정적 의견은 자제해달라. 레드카드 꺼낼 뻔 했다
김지환:	DIY로 하면 부품의 탈락이 쉽게 되지 않나
박진석:	동의한다. 탈락이 쉽게 되지 않나
류송지:	초강력 접착제를 이용하면 해결 된다
왕인성:	레고의 얇은 판 부품 두개를 겹쳐서 놓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는가?
박진석:	분리가 쉽게 되지 않더라. 이해했다
김지환:	레고로 만들었다고 가정하고 부품을 떨어뜨리면 쉽게 파손되지 않는가?
김다현:	두 개의 이어진 부품을 접착제로 붙이면 해결된다
박진석:	접착제를 사용하면 악취가 발생하지 않느냐
김다현:	향수로 악취를 감추면 해결되는 문제다
김지환:	접착제로 부품을 붙이는 것은 레고를 “조립”하는 것에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
류송지:	접착제로 레고를 붙이는 것이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본다
왕인성:	하지만 접착제로 붙힌 케이스도 떨어뜨리면 파손되는 것은 매한가지다
류송지:	왕인성님, 하양 모자 역할이기 때문에 근거가 부족한 의견과 한쪽으로 치우친 의견 제시를 자제해달라. 옐로 카드 한장을 지급하겠다
왕인성:	알겠다. 의견을 계속 제시하면 “젤리 케이스” 같은 경우는 파손 위험이 없지만, 하드케이스 같은 경우 파손 위험이 존재한다

류송지:	의견에 동의한다. 하지만 젤리 케이스도 기기 파손은 막을 수 없지 않나
왕인성:	동의한다. 하지만 레고 부착형 수납함은 젤리 케이스 보다는 하드케이스에 더 적합할 것 같다
류송지:	동의하지만, 적절한 근거와 관련 의견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김지환:	부품을 보다 쉽게 탈부착 하기 위해서는 자석을 이용하면 편리하다
류송지:	해당 의견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될 거 같다
박진석:	해당 의견에 대해선 반대 입장이다. 아무리 센 자석이라도 수납되고 있는 물품을 보호하기는 어렵다
김다현:	자석이 아닌 벨크로를 사용하면 해결 되는 문제다
왕인성:	오토바이로 배달 할 때 사용되는 매우 강력한 벨크로가 존재한다
류송지:	동의한다. 실제 콜라 배달을 할 때 벨크로를 사용했는데 너무 고정되 잘 된 나머지 오토바이의 진동으로 콜라가 터진 경험을 토대로 해당 의견에 동의한다
왕인성:	공감한다. 리뷰 이벤트로 사장님의 사인의 받은 사인도 갖고 있다

[답답]

류송지:	대화의 주제가 너무 빗나갔다 의견을 말해달라
왕인성:	레고와 벨크로와 자석을 제외하고 박진석님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는가
김지환:	그 전에, 본론으로 돌아와서 DIY란 새로운 완제품이 아닌 다른 부품으로 교체하는 묘미로 사용되는 것인데, 레고를 접착제로 붙인다면 다른 부품으로 교체 할 수 없게 되므로 DIY 케이스를 살 필요가 없어진다. 따라서 해당 아이디어는 논점에 어긋난다
류송지:	반박한다. "DIY"의 정의는 "자신이 직접 파트를 만들고 꾸민다"라는 의미다
김지환:	아이디어의 주제는 파트 "탈부착" DIY 케이스다
류송지:	그럴 경우는 그 파트 부분만 제거한 뒤 해당 파트를 다시 접착제로 붙이면 해결된다
박진석:	이의 있소. 파트를 두개 이상 붙이면 파손 가능성과 내구성 문제가 있고 한번 파손되면 해당 파트는 다시 사용하기 불가능한 단점이 있다
류송지:	해당 문제는 탈부착으로 쉽게 해결되는 사안이다
김지환:	이의 있소. 파트별로 종류가 다양한데 해당 종류의 파트가 언제 어디서 필요한지 알 수 없는 것이 탈부착의 흠이라고 생각한다
류송지:	탈부착 및 DIY의 의미 자체가 사용자의 마음대로 요소를 추가 및 제거를 할 수 있는 것. 따라서, 소비자는 자기가 필요한 요소는 추가적으로 구매를 하여 욕구를 충족할 수 있고, 생산자는 "세트 상품"을 생산하여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것 처럼 둘의 상호작용이 일어남과 동시에 위의 흠을 해소할 수 있다
김지환:	사용 도중 다른 물건의 수납이 필요하다면 해당 물건 수납 파트를 붙여야 하는데, 그 과정이 번거롭다
류송지:	해당 상황에 대해서는 두 개의 파트를 미리 부착하면 해결된다
왕인성:	마찬가지로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모든 파트를 미리 구매한 뒤, 필요와 상황에 맞춰 언제든지 편의성과 디자인적용을 고려하여 변경 가능한 것이 DIY의 가장 큰 메리트임
류송지:	파트 뿐만 아니라 사진 등도 부착이 가능하며, 모든 파트가 필요한 헤비유저도 있을 가능성이 있다

왕인성: 위의 근거를 토대로 상업성이 있다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중고거래 시장의 부흥도 기대할 수 있음

김다현: 새로운 아이디어로 파츠들을 보관할 수 있는 케이스를 만드는 것은 어떤가

류송지: 좋은 생각이다. 케이스에 모든 물건을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기만의 취향에 맞는 물건 보관함을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동의한다

김지환: 모든 물건을 담을 거면 가방에 넣는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류송지: 가방은 부피가 크기 때문에 공간 활용도가 낮다

왕인성: 가방안에 파우치를 들고 다니는 것 처럼, 파츠를 담은 케이스도 있는 것이 효율적이다

김지환: 수납 파츠의 목적이 상시 들고있는 스마트폰에 간단한 물건을 언제든지 꺼낼 수 있는 편리함인데, 모든 파츠를 부착하고 다니는 경우는 해당 의견과 일치하지 않는다

박진석: 위의 의견에 동의한다

류송지: 좋은 의견이다

왕인성: 이제 중립적인 의견을 말하겠다

[입장 차이와 발언권에 대한 이야기]

왕인성: 큰 수납이 필요한 경우는 가방에, 작은 물건 보관이 필요할 때는 수납 케이스를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류송지: 상시로 들고다니는 스마트폰에 비해 가방은 일시적으로 큰 이동이 필요할 때만 주로 사용하는 특징을 관찰하면, 가벼운 이동을 할 때 작은 물건의 수납이 매우 유용하다

김지환: 그럴 경우, 가벼운 이동의 목적에 맞게 한 가지의 파츠만 사용하면 되며, 여러 개의 파츠를 살 이유는 없다

류송지: 개개인마다 주로 사용하는데 있지만 그것이 꼭 "한 가지"가 아닌 두 개 이상일 가능성도 매우 높으므로 여러 개의 파츠가 필요하다

김지환: 만약 이동하는 데 필요한 물건이 두 개 이상이라면 어떤 걸 고르시겠나?

류송지: 두 개 이상이라면 들고 다니겠다

김지환: 그렇다면 DIY 케이스의 의미가 없지 않느냐

왕인성: "수납공간" 하나에만 중점을 두지 말고, 여러 크기의 수납공간을 사용자의 취향에 맞춰 제공하면 여러 니즈를 충족할 수 있다

류송지: 동의 한다

왕인성: 주제를 바꿔서, 현재까지 너무 많은 긍정적인 의견만 나왔다. 부정적인 의견도 들어보아 공평하지 않나

박진석: 부정적인 면모가 보이지 않는다

류송지: 부정적인 의견은 있다. 예를 들어 무선충전 기능이 되지 않는 것이 있지 않냐

박진석: 위의 의견에 격하게 동의한다

왕인성: 그 의견에 대해서는 무선충전이 되는 파츠를 달면 해결되지 않겠나

김다현: 아이폰을 예로들면 "맥세이프" 모듈이 좋은 예다

류송지: 그 모듈을 무겁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왕인성: DIY 케이스는 무게를 감안하고 사용하는 제품이다

김다현: 맞다, 파츠 탈부착 DIY 케이스는 다양한 외형이 큰 장점이라 무거운 무게는 충분히 수용 가능하다

왕인성: 또한, 단점을 장점으로 승화시켜 헬스 매니아가 중량을 칠 수 있도록 개조하면 더 좋은 공급원이 될 수 있다

김지환: 나쁘지 않은 의견이다. 인정한다

류송지: 긍정적인 검토가 많이 나와서 좋다. 다른 부정적 의견이 없으므로 결론을 이야기하면 아래처럼 정리할 수 있겠다

● **결론**

- 생산자 입장에서, 소비자가 어떤 것을 원하는지 몰라도 파츠의 종류만 많다면 자연스럽게 수요가 생김
 - 소비자의 입장에서, 대중적이지 않고 다양한 선택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서로 윈-윈인 최고의 아이디어
 - 종류가 너무 많아 재고가 발생한다면, 수요가 적은 선택지는 소량 생산을 하는 식으로 처리하면 됨
-